

# 최근 글로벌 주가급락의 배경 및 금융시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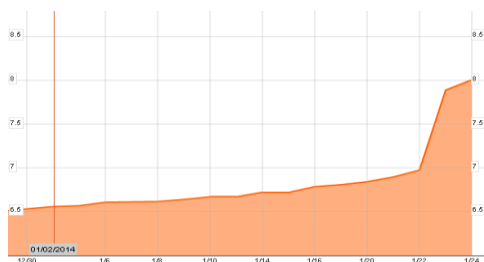
(2014.1.28)

BS경제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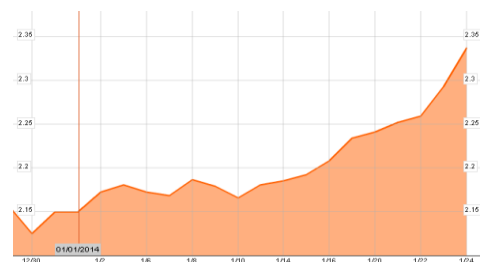
## 미국 주가급락

-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1월 24일(현지시간) 전일대비 1.96% 하락하여 지난해 6월 20일 이후 7개월만에 최대 일일 하락폭 기록
  - 영국(-1.62%), 독일(-2.48%) 등 선진국과 아르헨티나(-3.93%), 브라질(-1.10%) 등 남미 신흥시장국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
- 1월 27일에는 아시아 주가도 급락(인도네시아 -2.58%, 필리핀 -1.77%) 하였으나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0.26% 하락하며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음
- 이와함께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아르헨티나, 터키 등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확대
  - 지난 23일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미달러대비 13% 이상 급락하여 2002년 외환위기 이후 일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
  - 터키 리라화도 1월 24일까지 10일 연속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 기록

아르헨페소/미달러 환율



터키리라/미달러 환율


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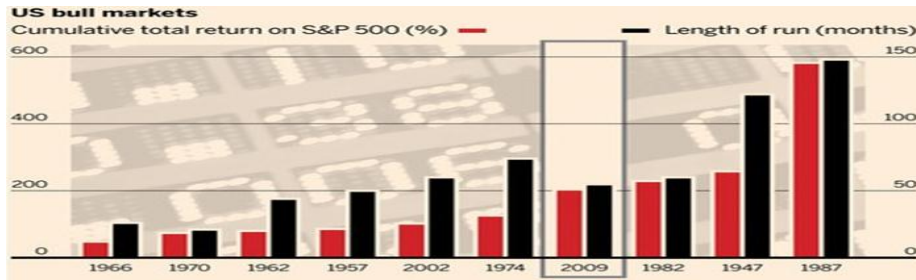
## 주가급락 배경

- 미국의 추가적인 유동성공급 축소(tapering) 예상과 중국경기 둔화 우려가 최근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
  - 1월 28~29일 개최되는 FOMC 회의에서 100억달러 내외의 추가 테이퍼링을 예상하는 의견이 우세(WSJ, 2014.2.20)
  - 1월 23일 발표된 중국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(PMI) 잠정치가 49.6을 기록하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50미만으로 하락

## 향후 금융시장 전망

- 2009년 3월 이후 역사상 4번째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주가의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크게 위축
  -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4년간 GDP 마이너스 갭인 상태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불안심리 가중
  - 최근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Shiller Cape 지수가 25를 기록하며 2007년 하반기 peak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, 대공황 이후 peak시의 평균(21)을 상회
  - 신흥시장국의 자산가격 상승도 미국의 양적완화에 주로 기인한 것이므로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 이후 약세 예상

## 미국 주가 상승기의 상승폭과 상승기간



자료: JP Morgan Asset Management

- 이에 따라 미국주가 하락 → 소비심리 위축 → 미국 경제 회복세 둔화 → 글로벌 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
- 다른 한편에서는 금번 미국 주가의 급락은 추가 테이퍼링 예상에 따른 기술적 하락으로 보고 조만간 미국 주식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기대
  -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고 신흥시장국 불안도 경상수지 적자, 외화보유액 부족, 정부정책 신뢰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과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☞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, 미국·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상황에 따라 당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☞ 우리나라의 경우 신흥시장국과 달리 경제성장, 경상수지, 외환보유액 등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한데다 환율상승시 수출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

(작성자: 백충기 과장)